

광산구 '공공일자리 사업' 제각각...구직자들 '혼란'

각 실적별 사업 진행에 신청시기 놓치고 정보 얻기 어려워 김은정 구의원 "구직정보 총괄 '온라인 통합 플랫폼' 필요"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산발적으로 난립하면서, 구직자들이 제때 구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실적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구직자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광산구의회 김은정 의원(진보, 참단 1·2동)은 지난 21일 광산구의회 제281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별 '공공일자리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부서별로 제각각 진행되는 데다 안내도 일관되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고, 정보조차 얻기 어려워 답답해 하는 구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산구의 경우 '광산시민수당' 등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단시간 일자리로, 간접 고용 등에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오프라인과 동



김은정 구의원

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각 기업체의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 '광산일드림센터'와 연계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일관된 안내와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산구가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공식 누리집에도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더 많은 주민이 '공공형 일자리'로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북구에 있는 사적지인 '충효동 요지' 관리자들이 최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수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폭우에도 문화재 잘 지켜냈다

문화재현장점검단 구성...피해 위험요인 제거 등 선제적 대응

광주지역 문화재들이 역대급 집중호우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기간 동안 문화재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문화재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특히 문화유산자원과 자치구, 문화재들본센터 인력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지반 약화, 토사유실, 배수 불량 등 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주변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단은 문화재 주변 배수로의 장애물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접근금지 안전 테이프를 부착했으며,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호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찰 강화와 사전 응급조치를 진행한

결과, 역대급 폭우에도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없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13일 폭우 피해를 입은 만취정(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6호) 복구를 위해 광주시 문화재위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가야고분도 등 전국에서 67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광주지역 문화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역대급 폭우 체계적 신속 대응...큰 피해 막아

비상 3단계 가동 전 직원 비상근무 장록교 홍수주의보 주민 대피 도와

광주 광산구가 역대급 폭우에도 전 직원 신속 대응 등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3일 밤부터 24일까지 시간당 최대 56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광산구는 24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만 173.5mm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이번 폭우에 대비해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비상 3단계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2분의 1을 소집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4일에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라 광산구 관내 곳곳에서 재난 위험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직원을 소집·배치했다.

실제 지난 24일 소집된 직원들은 새벽 1시 40분께 장록교 인근에 홍수주의보에 발령되자, 곧바로 침수우려 지역 주민들의 임시 대피를 도왔다. 또 대피견고 문자 발송과 함께 침수 현장에 직원들을 신속히 투입해 확성기 등으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상습 침수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대피를 유도했다.

이 같은 대응 덕분에 신덕, 장록, 송촌 등 3개 마을 주민 101세대 158명이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각각 광산구청과 평동중학교로 임시대피 할 수 있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대피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호물자와 텐트 등을 제공했으며, 임시 대피했던 주민들은 별다른 피해 없이 같은날 오후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다.

광산구는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43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14군데 상습침수지역에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 장마철에는 수시로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비가 그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나 노후한 건축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완동 주민자치회, '유엔아이수완 소통방' 개소...이웃 간 갈등 예방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광주 광산구 수완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1일 이웃 간 소통 및 화해 지원 플랫폼 '유엔아이수완 소통방'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광산구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유엔아이수완 소통방'은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6명이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업해 운영한다.

소통방에 소속된 주민화해지원인인 '주민자율협약안'과 문고리형 소통지 등을 만들어 이웃 간 생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사례 접수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갈등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중 소통방장(주민자치회장)은 "이웃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해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강현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현행 복지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변경해 향후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인 가구의 고독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은 관리책임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별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원사업에 6개 항목을 추가 반영해 총 10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국강현 구의원

추가로 신설된 6개 사업은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방문 간호 서비스 및 휴블런스 센터 운영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그 외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국강현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위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약자를 위한 복지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